

“스마트 생태문화도시 조성...새 천년 나주의 꿈 펼칠 것”

재선 성공 강인규 나주시장 민선 7기 구상은

4조4000억 규모 23개 사업 전담부서 지정 효율적 추진
혁신도시 시즌2·4차산업 혁신 성장동력 사업 발굴 매진
SRF열병합발전소·한전공대 설립 합리적 해결책 모색

“전라도 정명 천년이 되는 해를 맞아 새 천 년 나주의 꿈을 펼쳐내는 원년으로 삼고 나주를 다시 호남의 중심도시로 이끌어 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선에 성공한 강인규(63) 나주시장은 “민선 7기는 새로운 천년 나주의 꿈을 펼쳐 나갈 천운의 기회”라며 “민선 7기 슬로건인 ‘함께하는 미래 호남의 중심 나주’에 부합하는 시정을 11만 나주시민과 함께 모든 역량을 다해 펼쳐 나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강 시장은 시정 핵심 운영 방향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와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는 혁신성장 분야의 선제적 대응과 지방분권·재정분권에 따른 자치역량 강화 등 7대 시책 실현을 강조했다.

강 시장은 민선 6기 때 발굴해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시킨 4조4000억원 규모 23개 단위사업에 대한 과제별 전담 부서를 지정해 단계별 이행목표를 수립하고 분기

별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 체계 구축에 행정력을 집중할 생각이다.

특히 사업내용이 미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나주시 사업’으로 반영해 반드시 ‘우리 것’으로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또 ‘혁신도시 시즌2’와 ‘4차산업 혁신성장동력 사업’ 발굴에 매진할 방침이다.

그는 “시즌 2는 혁신도시를 국가균형발전 선도할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이 핵심 목표”라며 “우선적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중점을 두고 도시정주여건을 개선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SRF열병합발전소 갈등 문제와 한전공대 설립, 정주여건 개선 등과 관련해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 시장은 “SRF열병합발전소 문제가 지난해부터 수개월째 해결되지 못하고 법적·사회적 논쟁이 지속되고 있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환경권과 생존권, 안전

성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발전소를 가동할 수 없다는 원칙을 토대로 보다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또 “한전공대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세계 최고의 에너지분야 인재 양성소가 될 것”이라며 “우리 시는 그동안 에너지 신기술 실증센터와 에너지밸리 연구센터 등 미래 에너지 분야 산·학·연 클러스터 기반을 확실히 구축해 왔고 공대 설립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각계 의견수렴을 위한 시민 공청회도 지속적으로 개최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집체기에 접어들어 원도시 활성화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강 시장은 “시 자체적으로 스마트 생태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해 천 년의 역사 문화, 생태환경을 보유한 원도시와 혁신도시의 산업적 역량을 아우르는 협력 사업을 1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문화경제 클러스터 특화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기존 추진하고 있는 읍성권 도시재생과 함께 읍성권 폐 공장 부지개발, 영산포, 남평읍 권역 3개 권역 개발사업을 8월 중 공모를 통해 선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역 푸드플랜 선도 지자체’로서 시민의 건강한 먹거리 접근권 보장과

민선 7기 7대 시책

-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성공적인 실현
- ▲4차 산업혁명 13개 분야 혁신성장 동력 선제적 대응
- ▲원도시와 혁신도시 상생발전 전략 마련
- ▲‘혁신도시 시즌2’ 활성화
- ▲지방분권에 대비한 자치능력 강화
- ▲2019년도 정부 예산 기조에 맞는 국비 확보
- ▲‘공문화 위원회’(가칭) 등 지역사회 현안과 갈등 해결 절차 마련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에 집중해 농업, 농촌 활성화를 이끈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대표 특산물인 나주배 품종개발 통한 상품 다양화와 농업 품목간 연계를 통한 농가 소득 창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으로 나주 위상회복 및 종합 농산업 스마트팜 기반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끝으로 강 시장은 “선거기간 시민과 함께 나주를 호남의 중심도시로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며 “오직 나주발전과 시민 행복만을 바라보며 시민들의 선택이 좋았다는 것을 노력과 결과로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



나주시, 하반기 공공근로·공동체일자리 152개 창출

나주시는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 생활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올해 하반기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24일 나주시에 따르면 시는 하반기 4개 분야 공공근로사업과 2개 분야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6억7000만원을 투입해 공공부문 일자리 152명을 창출한다.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정보화추진’(건축물 대장 전산화 등 4건)와 ‘서비스지원’(작은도서관 지킴이 등 6건), ‘환경정화’(소공원 및 가로화단 관리 등 18건) 기타 사업 1건(스쿨존, 어린이 안전관리 지원) 등 4개 분야 29개 사업에서 122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시책활용사업’(1건)과 ‘지역유희공간 및 마을가꾸기 사업’(친환경 꽃길 조성사업 등 3건) 2개 분야 4개 사업에서 30명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특히 하반기부터는 ‘빛가람 수질복원센터 시민공원 환경정비’와 ‘금성산 생태 유아 숲 보조원’ 신규 사업 2건이 환경정화와 시책활용사업 분야 일자리 사업으로 추가됐다.

이에 앞서 시는 이달 초 선발한 청년 21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이 세지면 화탐마을 돌담길 조성사업에 투입돼 작업을 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명으로 정보화 추진 및 서비스 지원 분야 일자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현재 환경정화분야 등 장년 및 노년층 일자리 참여자 131명에 대한 선정을 마친 상태이며 다음달 1일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은 경제활동에서 소외된 일자리 취약계층

층과 실직자들의 생활 안정을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시민을 위한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가치 아래 구인업체와 구직자 간의 미스매칭 해소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취업알선 등 다양한 일자리 정책 발굴·추진에 힘써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acson@

나주시, 정부합동평가 우수 시·군 선정

포상금 등 재정 인센티브

나주시가 ‘2018년 정부합동평가’에서 행정 전반 뚜렷한 개선 실적을 바탕으로 우수 시·군에 선정돼 포상금과 사업비 지원 등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정부합동평가는 매년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한 국가위임사무, 국가 주요시책 등 추진성과 등을 평가한다.

올해는 지난 해 추진한 일자리창출과 규제개혁 등 11개 분야 212개 지표의 실적을 대상으로 온라인 평가와 현지 확인·검증, 고객 제감도 조사 등을 거쳐 확정됐다.

나주시는 일하는 방식의 개선을 통해 국정 시책과 시정 현안과제의 추진체계를 정립하고 직원들의 평가 이해도 향상을 위한 컨설팅 실시, 정성지표 우수사례 발굴, 추진 실적 점검과 부진대책 강구를 위한 부서장 주재 보고회 개최 등 실적 향상을 위

해 총력을 기울인 결과 전남 지역 우수 시·군으로 선정됐다.

특히 사회복지와 일자리창출 등 6개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환경산림과 문화가족 등 4개 분야에서 실적도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나상인 나주시 기획예산실장은 “이번 평가결과는 모든 직원이 합심하여 관심을 가지고 노력한 결과로 정부합동평가 실적은 시·군의 행정력을 진단하는 지표로 활용되는 만큼 내년 평가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

폭염 등 재난대비 요령 책자 발간 읍·면·동 배포

나주시는 폭염 등 ‘재난대비 요령’을 담은 책자<사진>을 발간해 읍·면·동 주민센터 등 주요 기관에 배포했다.

24일 나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20개 읍·면·동 민방위 창고에 보관중인 방독면과 신호봉, 메가폰 등 민방위장비를 정리하고 유사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현황판과 표지판을 제작·부착하는 등 재해 관련 창고 정비를 실시했다.

시는 이번 정비를 통해 유효기간이 지난

방독면 5000여개를 일괄 수거하고 올해 하반기 폐기처분할 계획이다.

시는 또 화재와 호우, 지진 등 각종 재난 및 비상 상황 발생 때 대응 지침을 담은 책자인 ‘재난대비 시민행동요령’을 발간했다.

책자에는 화재나 물놀이, 전기, 가스, 교통 등 사회재난은 물론 황사나 미세먼지, 호우, 태풍, 폭염, 한파, 지진 등 ‘자연재난’과 전쟁 발발 전·후 등 다양한 형태의 재난 대비 요령이 알기 쉬운 만화로 설명됐



다.

특히 예년수준을 훌쩍 웃도는 전국적인 폭염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준비사항을 비롯해 무더위쉼터 운영 안내와 가정과 산업·건설

현장 등에서의 맞춤형 대비 요령 등을 담아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나주=손영철 기자 yacson@

130년 전통
독일 지멘스 보청기

‘새로운
소리를 듣다’

선배 .한 달 착용후 불만족시 100% 환불

새배 .4개지점 어디서든 A/S 및 소리조절

동배 .보청기정부지원금 131만원 신청

넷배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50% 할인

상무지구: 376-1010 / 북구말바우: 268-9001 / 광산·수완: 954-1030 / 전대의대: 430-8801

농촌의 새로운 희망

농림축산식품부
에너지관리공단
농협

농촌 태양광 농업진흥구역 규제완화
대통령령 제28838호,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 가능
90% 용자 지원 사업 선착순 접수

연금 발전소
태양광이 효자!!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200KW설치시 연금처럼 월 500만원 꼬박꼬박 (25년동안 년평균 6,000만원)

100년 기업
믿음 · 신뢰
(주)해가온 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